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검토 -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한중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 머리말

역사 용어는 역사적 사실을 보는 관점이나 역사 해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기에 역사학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서도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용어에 큰 관심을 가진다. 같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달리 부르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성격이 더욱 강한 것이 역사 용어이다.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학술 용어는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역사 학습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거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진골 귀족이나 양반과 같은 신분, 전세나 역, 공납과 같은 조세를 가리키는 용어의 개념을 우리는 역사 학습을 통해 배운다. 이런 용어들은 역사학이나 역사 교육의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역사 교육뿐 아니라 다른 교과나 학문 영역에서도 사용되지만, 역사적 사실의 해석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용어가 있다. 이를 사고 도구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지배층이나 관리들의 수탈에 맞서 일어난 농민의 봉기는

‘봉기’뿐 아니라 ‘난’, ‘폭동’ 등으로 부르며, 이런 봉기가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19세기 중엽 세도 정치하 관리들의 수탈과 삼정 문란에 맞서 일어난 농민 봉기를 ‘임술민란’과 ‘임술 농민 봉기’ 중 무엇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도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 속에 들어갈 때 사고 도구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전문 용어의 경우 남북한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동일한 용어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역사 변화나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의 해석이나 평가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런 해석이나 평가에 따라 사고 도구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고 도구어의 경우,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다.

역사 용어를 둘러싸고 남한의 학계나 사회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동학 농민 운동, 애국 계몽 운동, 6·25 전쟁과 같은 사건을 가리킬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역사학계의 커다란 논쟁 대상이다. 전문적인 학자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용어를 달리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남한 내부의 용어 차이는 다루지 않고, 남한과 북한 교과서에서 달리 사용하거나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역사 용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비교 대상은 현재 남북한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이다. 남한의 역사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3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역사》, 2014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이다.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2013년 <과정안>에 따라 간행된 초급중학교의 《조선력사》와 고급중학교 《력사》이다. 남한의 역사 교과서 중에는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있으며, 북한 고급중학교 《력사》에도 세계사 내용이 나오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사 용어만을 비교 검토의 대상

으로 한다. 남한의 역사 교과서는 원시 사회부터 현재까지를 다룬다. 이에 반해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는 1920년대까지의 역사만 나오며, 그 이후의 근현대사는 혁명 역사라 하여 별도로 다룬다. 북한의 혁명 역사는 시기 범주로는 한국 근현대사에 해당하지만, 정치 교양 과목으로 남한에서 생각 하는 일반적인 역사 과목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이 글의 검토는 1920년대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한정한다.

2. 남북한 역사 교과서의 학술 용어 선정 경향

역사적 사실의 해석이나 평가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역사 개설서나 아동, 청소년 역사책들도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달리 부르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북한 교과서는 물론 남한 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각 과목별로 <편수 자료>를 만들어 용어를 제시하며, 교과서 용어는 이를 따른다. 학생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개정될 때,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용어가 변경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1년부터 사용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과서는 고려 전기 묘청 등이 서경(지금의 평양)에서 중앙 귀족들에 맞서 일으킨 봉기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불렀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묘청의 난’으로 바꾸었다. 이 사건을 학자들에 따라 서경 천도 운동으로 보기도 하고, 권력 장악을 위한 난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교과서는 그때그때 <편수 자료>에 따라 하나의 용어로 통일한다. 조선이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을 1990년대 교과서까지는 ‘신사 유람단’이라고 부르다가, 2000년대 교과서들은 ‘조사 시찰단’이라고 바꾸었다. 이 사절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는 교과서는 물론 일반 역사책들에서도 용어가 통일되어 있다. 역사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토론하지만, 학자들 간의 해석이나 평가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른 용어로 부르기도 하지만, 남북한 중 한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도 있다. 남북의 체제 경쟁에 역사를 이용할 때 이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통국가’라는 개념은 북한에서만 사용한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북한의 <과정안>에서는 ‘정통국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역사 변화와 발전에서 정통성을 가진 국가라는 의미이다. 남북한 모두 정통성에 관심을 두고 역사에서 정통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남한보다 그 정도가 훨씬 강하다. ‘정통국가’라는 용어는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2013년 <과정안>에 등장하였다. 그만큼 역사 교육에서 정통성의 인식을 강화한 것이다. 남북 역사 연구와 이해가 기반을 두고 있는 역사관에서 비롯되는 용어도 한쪽 편에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북한 역사학과 역사 교육의 기반이 되는 주체사상의 사회 역사 원리(주체사관)에 따른 역사 용어들은 북한 교과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3. 남북한 교과서의 역사 용어

3.1. 남북한이 달리 사용하는 역사 용어

남한과 북한 역사 교과서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른 용어로 나타내는 예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남북한 역사 교과서에서 차이를 보이는 역사 용어

남한	북한
삼국 시대	세나라 시기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왕릉비
통일 신라	후기신라
농민·천민의 봉기(난)	12세기 후반기 농민전쟁
개경 환도	구도환경
이시애의 난	함길도 농민전쟁
임진왜란	임진조국전쟁
홍경래의 난	평안도 농민전쟁
병인박해	병인사옥
임오군란	임오군인폭동
고부 민란	고부인민폭동
동학 농민 운동	갑오농민전쟁
명성 황후 시해	명성황후 살해
헤이그 특사	헤그 밀사
애국 계몽 운동	애국문화운동
3·1 운동	3·1인민봉기
간도 참변	경신간도대 <토벌>
6·25 전쟁	조선전쟁

이처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가장 큰 원인은 역사관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차이이다. 통일 신라와 후기신라, 농민·천민의 봉기와 12세기 후반기 농민전쟁, 이시애의 난과 함길도 농민전쟁, 홍경래의 난과 평안도 농민전쟁, 고부 민란과 고부인민폭동,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농민전쟁, 3·1 운동과 3·1인민봉기 등의 용어들이 그런 사례이다.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관은 주체사관이다. 주체사관에서는 역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며, 역사 발전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주체사관은 독자적인 역사 발전의 원리임을 내세우지만, 이런 관점은 마르크스의 사관에서 계급 투쟁의 논리와 비슷

하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일어난 주요 농민 봉기를 농민 전쟁으로 보는 것이다. 고려 무신 집권기에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난, 김사미의 난, 효심의 난, 만적의 난 등 농민과 천민에 의한 일련의 봉기를 남한 교과서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다루지만, 북한 교과서는 '12세기 후반기 농민전쟁'이라고 하여 농민 전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시애의 난과 홍경래의 난의 경우 남한에서는 봉기를 주도한 인물을 앞세운 용어를 쓰지만, 북한에서는 주체를 농민으로, 사건의 성격을 전쟁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임오군란을 '임오군인폭동'으로 부르는 것과 3·1 운동을 '3·1인민봉기'로 부르는 것도 이들 사건의 주체가 인민대중임을 명시한 것이다.

남한 교과서와 달리 쓰는 북한 교과서의 역사 용어 중에는 정통성이나 주체성의 강조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다. 후기신라나 임진조국전쟁과 같은 용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일 신라'라는 용어 대신 '후기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에서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라를 정통성이 없는 국가로 여긴다. 신라 중심으로 삼국을 서술하는 경향이 있는 남한 교과서와는 대조적이다. 남한의 역사책이나 교과서는 모두 삼국 통일 이후 신라 하대를 가리켜 '통일 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남한에서는 발해를 신라와 함께 병존했던 한국사의 국가로 보고 남북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신라를 가리켜 '통일 신라'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삼국 시대의 신라와 구분하여 '후기신라'라고 표현할 뿐이다. 더구나 남북국 시대에서도 통일 신라가 아닌 발해를 정통성을 가진 국가로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명목을 신라가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이었다는 것과 한반도 전체와 만주 지역까지가 아닌 평양 이남만을 통합했다는 데서 찾는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의 밑바탕에는 신라가 북한 지역이 아닌 남한의 경주에 기반을 둔 국가라는 이유도 있다. 북한 지역에 있거나 북한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을 정통 국가로 여기는 것으로, 현재에도

북한에 정통성이 있음을 은연중에 이런 역사 변화 속에서 찾는 것이다. 삼국 중 고구려, 통일 신라가 아닌 발해를 정통 국가로 보는 것에서 이런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신채호가 삼국 통일을 보는 관점과도 비슷하다.

‘임진조국전쟁’이라는 용어에서도 북한의 강한 민족주의적 관점과 정통성 추구를 엿볼 수 있다. 임진왜란을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키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으로 보는 것이다. 임진왜란 중 일어났던 사건 중 남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연안대첩(이정암이 황해도 연안에서 구로다가 이끄는 일본군을 물리친 전투)과 북관대첩(정문부가 이끄는 의병이 함경도에 침입한 가토 기요마사의 일본군과 반란을 일으킨 조선인, 여진족 등을 토벌한 전투), 평양성 해방 전투(명군과 조선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전투) 등을 서술한 것도 승리를 한 전투를 자세히 서술한다는 일반적 원칙과 함께, 이들 전투가 모두 북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한 몫을 한다. 북한 교과서가 남한 교과서보다 훨씬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고려 무신 정권 시기의 조위충의 난이나, 조선 전기 이시애의 난, 조선 후기 홍경래의 난도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봉기이다.

이 밖에 사건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용할 용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병인박해를 북한 교과서가 병인사옥이라고 하고, 간도 참변을 ‘경신간도대 《토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병인박해는 박해를 받은 사람이 일반 민중임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병인사옥은 천주교도를 주체로 본 것이다. 간도 참변이 변을 당한 사람을 주체로 하는 용어라면, ‘경신간도대 《토벌》’은 사건을 일으킨 일본군을 주어로 놓은 용어이다.

3.2.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역사 용어

남한과 북한 중 한쪽 편 교과서에서만 보이는 역사 용어들도 있다. 이런 용어들은 역사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없이 교육 정책상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남한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북한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역사 용어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북한 교과서에만 나오는 역사 용어

용어	역사적 사실
정통국가	한국사에서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
원시무리	선사 시대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
단군릉	북한이 단군과 부인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무덤
노예소유자 국가	고조선의 사회적 성격
신지글자	고조선에서 사용했다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글자
구려	고구려 이전 이 지역에 존재한 국가
봉건국가	고대 노예제 이후, 근대 자본주의 이전 국가의 성격.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부터를 봉건 국가로 본다.
9세기말 농민전쟁	신라 하대 농민 봉기. 초적이거나 적고적의 봉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조선 후기 사회의 성격. 자본주의가 나타나기 직전의 사회
춘생문사건	을미사변 직후 미국이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사건
부르조아 개혁	갑신정변의 성격

북한 교과서에만 나오는 용어들 중에는 남한과 다른 북한의 역사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주체사관이나 유물 사관에 따라 역사 발전 단계를 설정하고, 그 합법칙성을 보여 주는 개념어들을 사용한다. 원시무리, 노예소유자국가, 봉건국가,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부르조아 개혁과 같은 용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남한의 역사 교과서도 선사 시대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한다고 본다. 특히 사냥과 채집을 주업으로 하는 집단의 구성 방식은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남한 교과서는 ‘원시무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북한 교과서에서 ‘원시무리’는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중요한 용어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교과서에서는 ‘모계씨족’이나 ‘부계씨족’을 주요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역사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발전하는 합법칙성을 보여주는 용어를 중시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고조선의 성격을 가리켜 ‘노예소유자 국가’로 규정한다. 마르크스 사관에서는 고대를 노예제 사회라고 본다. 북한에서는 고조선을 이 단계의 국가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조선의 노비와 고대 서양의 노예가 같은 성격을 가진 사회 계층이라는 데에는 의문을 제시하는 연구자들이 많다. 서양의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가 주된 생산 담당 계층이었다. 그렇지만 고조선에서는 노비보다는 농민이 주로 생산을 담당했다. 서양의 노예와 한국사의 노비가 같은 성격인지도 의문이지만, 이들의 사회적 역할도 같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노예제 사회’ 대신에 ‘노예소유자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비를 소유한 사람들을 ‘노예주’로 표기한다. 이에 반해 남한 교과서는 하나의 역사관에 따라 역사 발전 단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조선 사회의 성격을 하나로 규정하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 교과서에 나오는 ‘봉건국가’나 ‘부루췌아 개혁’과 같은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마르크스 사관에서 봉건 국가는 고대 노예제 사회 다음 단계의 국가이다. 마르크스 사관에서는 이 시기 사회를 중세 봉건 사회로, 이 시기의 국가를 봉건 국가로 규정한다. 고구려부터 조선까지를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로 보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지배층을 가리켜 ‘봉건통치배’라고 한다. 남한의 역사학에서도 봉건 사회의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 개항 이전까지를 봉건 사회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는 '봉건 사회'나 '봉건 국가'와 같이 '봉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치배'에 민중을 수탈하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일반 역사책들에서는 이런 계층을 가리켜 '봉건 관료'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자본주의적 관계는 근대 자본주의 직전 사회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북한에서는 조선 후기를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한 사회로 규정한다. 마르크스 사관이나 주체사관에서는 중세 봉건 사회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려면 내부에 자본주의 맹아(싹)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역사 발전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자본주의 맹아론이라고 한다. 어떤 사회가 자본주의 맹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내적, 자생적으로 근대 자본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를 그런 성격의 사회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 사회가 내부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관점은 남한의 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농민층의 분해가 일어났으며, 대규모 자본을 가진 도고 상인의 출현과 민간 수공업과 광업 발달 등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조선 사회가 자체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으며, 외부의 영향이나 자극을 받아서만 발전했다는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로 나와서 한국 사학계의 주된 견해가 되었다.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식민 사학을 비판하고 주체적 입장에서 한국사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한 역사 교과서는 조선 후기 사회의 성격을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는 아마도 '자본주의 맹아'나 '자본주의적 관계'라는 용어가 학생들에게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북한 교과서와는 달리 하나의 역사 발전 단계에 맞춰 역사를 서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봉건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중간에 자본주의 맹아가 나타난 사회를 설정하는 것이 마르크스 사관의 역사 발전 단계이다. 북한에서는 이 단계에 맞춰 역사를 서술하지만, 남한 교과서는 이를 피한다.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의 성격을 이렇게 바라보지만, 직접 이런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지는 않는다.

남북한 교과서의 이런 차이는 갑신정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884년 급진 개화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일으킨 정변의 성격을 북한 교과서는 ‘부르주아 개혁’으로 부르지만, 남한 교과서는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갑신정변을 부르주아 개혁으로 보는 것은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른 것이다. 즉, 부르주아 혁명은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과도기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남한에서는 갑신정변의 성격을 보는 견해가 다양하다. 부르주아 개혁이나 혁명으로 보기도 하고, 권력 장악을 위한 단순한 정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교과서는 갑신정변의 성격을 하나의 용어로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의 어려움과 함께 역사 발전을 역사 법칙의 발전 단계에 맞춰 서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교과서에만 나오는 용어 중 일부는 북한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면서도 강력한 민족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몽이 부여에서 벗어나 졸본 땅에 고구려를 세우기 이전 이 지역에 ‘구려’라는 나라가 존재했다고 본다. 주몽은 구려를 기반으로 고구려를 세웠다는 것이다.

고조선과 관련된 단군릉이나 신지 글자는 북한 교과서에만 나오는 역사적 사실이다. 단군릉은 북한이 단군과 그 부인의 유골을 발굴했다는 평양에 있는 무덤이다. 북한에서는 이를 근거로 고조선이 평양 지역에 세워진 국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단군릉을 큰 규모로 다시 세워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근거로 삼았다. 그렇지만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단군릉을 역사적 사실로 서술하지 않는다. 남한의 역사학계에서 단군릉이

고조선 시기의 것이 아니며, 거기에서 발굴한 유골도 단군과 그 부인의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단군릉에 대한 내용은 실제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나온 뿐이다. 고조선에서 사용되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신지 글자도 강한 민족주의적 관점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실이다. 중학교 《조선력사》의 교수 참고서에서는 17세기 말 북애자라는 사람이 썼다는 《규원사화》라는 책에 고조선에서 신지라는 사람이 사냥을 하다가 모래땅에 찍힌 사슴 발자국을 보고 처음으로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신지 글자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고등학교 《력사교수참고서》에는 신지 글자를 더 자세히 설명한다. 평안북도 영변의 역사와 지리를 서술한 《영변지》에 16자의 신지 글자가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신지 글자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웃 나라 글자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민족 고유의 소리글자이자, 소리마디 단위의 마디 글자 유형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한다. 또한 신지가 글자를 만들게 된 계기와 과정을 전설로 상세히 서술한다. 남한에서도 고조선에서 문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환단고기》라는 책에 써 있는 가림토 문자이다. 《환단고기》는 일제 강점기 초인 1911년 계연수가 《북부여기》, 《태백일사》, 《단군세기》, 《삼성기》를 묶어서 펴냈다는 책이다. 사회 일부에서는 이 책을 근거로 고조선이 아주 오래 전에 세워졌으며, 넓은 영역을 가진 강대한 국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고조선은 문자를 사용할 만큼 발전한 사회를 이루었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남한 사회에서도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환단고기》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역사학계에서는 의문을 표한다. 이런 책을 근거로 한국의 상고사를 찬란한 역사로 미화하는 견해를 유사 역사학이라고 비판한다. 북한 초급중학교 《조선력사》에서 신지 글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규원사화》 또한 근대에 만들어진 가짜 책으로 판단한다.

앞에서 설명한 ‘정통 국가’는 북한의 정통성을 염두에 둔 용어이다.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사의 정통성이며, 이들 국가가 북한이 말하는 정통 국가이다. 초급중학교용 《조선력사》에는 고구려의 정치적 변화만을 다루고, 백제와 신라의 역사는 아예 빠져 있다. 문화 부분에서는 고구려 이외에 신라의 백결 선생이나 우륵의 가야금 정도가 언급될 뿐이다. 한반도에 하나의 통일 국가만 존재했던 고려 이후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삼국 시대나 남북국 시대는 북한 지역에 기반을 둔 국가를 정통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의 삼국 통일이 외세를 끌여들여 평남 이남 지역을 부분적으로 통합한 것이라는 비판적 평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역사 연구의 결과에서 비롯되는 용어들도 있다. ‘구려’는 역사 기록에 나오는 용어이다. 고구려 이전 압록강 일대에 존재했던 사회의 성격은 한국 고대사 연구의 주된 과제 중 하나이다. 북한은 고구려가 건국하기 이전 그 지역에 이미 국가가 존재했다고 보고 이를 ‘구려’라고 부른다. 이와는 달리 남한의 역사 연구에서는 고구려의 건국 이전 이 지역에 살던 예맥족 주민 집단이 ‘구려’라고 불린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남한 교과서는 이를 일절 다루지 않는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까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학설까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 구려라는 나라가 존재했다고 서술하는 것은, 북한 지역에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가 형성되었으며, 삼국 중 고구려가 정통성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뒷받침하려는 의도이다.

광개토 대왕릉비의 경우 남북 모두 이 비석을 광개토 대왕릉의 능비로 본다. 다만 남한에서는 ‘광개토 대왕릉비’를 공식 명칭으로 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사 연구와 이해에서 남한보다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북한이 ‘대’ 자를 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외이다.

4. 남북한 역사 교과서의 일상 용어와 사고 도구어

4.1. 북한 역사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일상 용어

일상 용어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말로 특정 학문이나 교과가 아니라 다른 여러 교과목에서 공유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에도 자주 나온다.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일상 용어를 알아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상 용어 중 다수는 국어의 읽기 교육에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상 용어가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명칭과 함께 사용될 경우 사고 도구어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용어의 선택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이미 들어가기 때문이다.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일상 용어 중 역사 이해나 해석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북한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일상 용어

용어	의미
천년강국	고구려를 가리키는 용어
청야수성전술	고구려가 중국이나 북방 민족의 침공에 맞서 싸울 때 취한 전술
내몰다	(적 등의 상대방을) 몰아내다
기여들다	몰래 들어오다
내몰다	동원하다
제끼다	제거하다
기여들다	몰래 침투하다

이 중 ‘천년강국’과 ‘청야수성 전술’은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천년강국은 북한이 고구려라는 국가 앞에 자주 붙여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북한에서는 이 용어를 고구려가 오랜 역사를 가진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기원전 4세기경 구려를 기반으로 고구려가 건국한 이후부터 668년 멸망할 때까지 천 년 동안 고구려는 수·당 등 중국이나 북방 민족이 세운 국가들과 당당히 맞선 국가임을 이 말을 통해 강조한다. 고구려가 중국의 침공에 맞서 싸운 전술은 ‘청야수성 전술’로 표현된다. 청야수성 전술은 적의 침공을 맞았을 때 산과 들을 비우고 성에 들어가 싸우는 전술이다. 원정군에게 물자를 현지에서 구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먹을 것과 쉴 곳을 없애으로써 적을 지치게 하려는 것이다. 청야수성 전술은 신대왕 때 최고 관직이었던 국상 자리에 있던 명림답부가 중국의 침공을 물리칠 때 사용했다. 학자들은 이를 고구려의 일반적인 방어 전술로 추정한다. 만주와 요동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적합하여, 고구려의 산성 방어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의 역사책에서는 ‘청야전술’이라는 용어로 이 전술을 소개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이 전술을 설명하더라도 ‘청야전술’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내몰다’, ‘기여들다’, ‘제끼다’와 같은 단어들은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정서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말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 교과서는 오히려 이처럼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을 즐겨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과 의미나 가치 판단을 달리하기도 한다. ‘내몰다’는 남한에서는 상대방을 몰아냈다는 의미이지만,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무리를 집단으로 동원했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기여들다’는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몰래 들어오거나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의미이지만,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부정적인 어감이 더 강하게 전달된다.

같은 뜻을 나타내지만, 남북한 사이에 평가를 달리하는 용어도 있다. ‘폭동’은 역사 교과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이다. 남한에서는 폭동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다. 농민의 집단 봉기를 폭동이라고 부른다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근래에는 교과서에서 민중 봉기를 가리켜 ‘폭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서 ‘폭동’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동’이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해의 건국 과정이나 이시애의 난을 북한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백두산 북부지역에서 대조영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 집단들은 684년에 소국인 진국을 세운 데 기초하여 당나라 침략군의 본거지의 하나인 영주에서부터 폭동을 일으켜 근 1000년간의 역사를 자랑하던 고구려를 계승한 큰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조선력사》 초급중학교 2학년용, 7쪽)

“함길도 농민전쟁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농민폭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조선력사》 초급중학교 3학년용, 23쪽)

그 밖에 ‘근로인민대중’이나 ‘후과’ 등도 북한 교과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용어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주체사관에서 역사의 주인공인 민중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근로자라는 말은 남한에서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되는데, 노동자의 근면성과 노력만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근로’라는 말을 긍정적 의미로 사용한다. ‘후과’는 잘못된 결과라는 뜻으로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는데 북한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다.

4.2. 민족 중심의 역사 용어

다른 교과나 일상 용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역사 용어는 한민족 중심이거나 민족 정서를 자극하기도 한다. 역사 교과서에 사용하는 일상 용어도

이런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도 이런 목적에 해당한다. 북한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를 ‘세나라 시기’로, 살수대첩을 ‘살수에서의 큰 승리’로 부른다. ‘시대’라는 말 대신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대라는 말의 개념을 엄두에 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시대나 시기를 특별한 구분 없이 그냥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지만, 시대 구분에서 ‘시대’는 사회의 성격을 만드는 공통 속성에 따라 구분된 기간이다. 북한 교과서는 남한 교과서보다 이런 개념을 명확히 적용한다.

북한 교과서에서 역사 용어 중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많이 쓰지만, 모든 용어에 이처럼 고유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성계가 병력을 돌려서 정권을 장악한 사건인 위화도 회군은 ‘위화도 군사들람’이라고 순화하지만, ‘위화도 회군’이라는 용어가 워낙 널리 사용되어 익숙하므로 두 말을 병기하거나 그냥 ‘위화도 회군’으로 부르기도 한다. 영어나 그 밖의 서양어로 된 역사 용어를 바꾸어 부르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원칙을 가리키는 용어인 ‘탈리오의 법칙’을 북한에서는 ‘동해보복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기한다. 원시인을 발전 순서에 따라 표기하는 원인(猿人), 고인(古人), 신인(新人)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사용한다. 드물기는 하지만 남한에서 고유어로 쓰는 용어를 한자어로 쓰는 경우도 있다. 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회오리바람을 북한에서는 ‘룡권(龍卷)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사례이다. 회오리라는 말이 익숙한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선 한자어이다.

민족적 정서가 강하게 들어간 용어들도 찾아볼 수 있다. 황해, 남해, 동해를 북한에서는 ‘조선서해’, ‘조선남해’, ‘조선동해’라고 하여, 반드시 ‘조선’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베트남의 명칭은 옛날에 월국의 남쪽이라는 의미로 ‘월남’ 또는 ‘안남’이라고 불리어 현재까지도 ‘월남’이라고 부른다. 남한 사회에서 월남은 과거에 자유주의 진영에 속했던 남베트남을 가리키던 명칭이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고 하면 월남을 연상하고, 베트남전을 ‘월남전’이

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이런 용어들이 반공 이념을 앞세워 베트남의 상황을 왜곡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요즘에는 ‘베트남’, ‘베트남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월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5. 맺음말

북한 교과서의 역사 용어는 북한의 역사관과 역사 인식, 역사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강하게 반영한다. 주체사관이나 마르크스 사관에 기반을 둔 용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일상 용어도 이에 적합한 단어들을 가려 사용한다.

북한의 역사 용어에는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논리에 따라 민족의 자주성이나 우수함을 강조하거나 외국의 침략을 물리친 역사적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말들이 많다. 다른 분야의 용어와 마찬가지로 한자어로 된 역사 용어를 고유어로 사용하는 것도 크게 보면 이런 경향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남북 교과서의 이런 용어 차이가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크지는 않다. 역사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역사적 사실의 평가에서 차이가 크지만, 역사적 사실을 구성하는 줄거리가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의 활발한 교류와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역사 용어의 통합도 가능하다. 또한 역사 용어를 다르게 부르는 다원적 관점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